

한·중FTA 임박...산·관·학·연 머리 맞댔다

광주상의·조선대·산자부, 광주서 'FTA비즈니스 포럼'

첨단 부품·소재 등 고급 소비재산업 육성 서둘러야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첨단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고급소비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비스무역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부, 조선대학교원 FTA비즈니스학과 등이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4 광주·전남지역 FTA비즈니스 포럼'에서 문경년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장했다.

문 위원은 '한·중FTA의 지역산업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만

간 한·중FTA가 발효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경우 7%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은 저성장의 그늘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중국의 지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중 수출의존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 위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대중 수

출은 277억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3국으로부터 무역전환효과 172억9300만달러, 중국국산품 대체 효과 104억6700만달러다.

반면 중국은 대한 수출이 126억3800만달러(제3국으로부터 무역전환효과 58억6100만달러, 한국국산품 대체효과 67억77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한 무역수지는 15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문 위원은 중국에서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의 핵심 부품과 소재를 개발해 대중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수입구조가 내수형으로 전환되고 고급소비재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소비재의 브랜드

화·품질 고급화·온라인 B2C몰 활용 등을 통한 소비재 수출 확대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중국내 관세가 면제되는 가공무역비중은 높고, 중국 내수용 품목에 대한 점유율은 낮은 만큼 한·중FTA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창우 한국 FTA산업협회장의 'FTA시대, 지역경제의 새로운 기회', 최수용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단 사무관의 '한중FTA 추진 현황',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의 '한중FTA 시대,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GIST 외국인 학생 "김치 담그기 재미있어요" GIST(GIST·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30여명은 지난 4일 '2014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명인과 함께하는 김치문화탐험'에 참가해 김치담그기 체험을 했다. <지스트 제공>

전남대 내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축제 '국제 교류의 날' 행사

세계 음식·놀이·벼룩시장 등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8일 광주캠퍼스 봉지 주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국제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수 및 가족,

외국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날 행사는 세계 음식과 한국문화·민속놀이 체험, 음식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체험마당에서는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 민속놀이와 전통공예·서예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먹거리 마당에는 각 나라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자

리가 펼쳐지고, 놀이마당에서는 투호·제기차기·떡치기·줄다리기 등의 우리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나눔마당에서는 과일과 빵 등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유학생들을 위한 베품시장이 열린다. 전남대학교 여교수회는 이날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재할용 가능한 각종 생활용품들을 기증받아 유학생들에

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김영만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국제교류의 날 행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정서를 가진 각국의 유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미용학과, 경연대회 잇단 수상

광주시장배 금상 등 휩쓸어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이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 뷰티미용 관련 대회에서 참가학생 전원이 입상하는 등 실력을 뽐냈다.

뷰티미용학과에 따르면 제26회 광주시장배 '미용예술경기대회 & 뷰티페스티벌'에서 정난영(3년) 씨가 패션메이크업 부문 대상을, 김민지(4년) 씨는 두피관리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또 신서로(4년), 유해리·장시월·오미월(이상 3년), 김영진(2년), 박채린(1년) 씨는 각각 은상을, 구송연(4년), 배진아·공슬기·김현주(이상 3년), 송다원·한근배(이상 2년), 이윤종·김정아(1년) 씨는

동상을 차지하는 등 대회 참가 학생 전원이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대 등 광주·전남 지역 10여개 대학 학생들과 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수강생 등 430여명이 출전해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등 20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뤘다.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은 앞서 (사)한국피부미용사 광주지부 주최로 열린 '광주시장배 뷰티테라피 경진대회' 등 관리 부문에 출전해 김정아(1년) 씨가 최우수상을, 손종태(2년) 씨는 피부미용사협회 한국지부회장상, 임세미(1년) 씨는 그랑프리 실버상을 각각 받는 등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전문가 릴레이 특강

문화·여행·금융 등 분야 다양

현장능력 전달 통해 취업 도움

동신대학교 특성화학과로 선정돼 명품학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경영학과(학과장 송경용)가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릴레이 특강을 개설했다.

이 특강은 관광 및 경영 분야에서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관련 분야의 현황과 산업 추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 능력 등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인사는도 공사, 문화, 여행, 호텔, 금융 등 다양하게 망라돼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 특강은 6일 이철구여행사의 이철구 대표가 한다. 이 대표는 감성을 움직이는 서비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고품격 관광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KT&G 김용덕 본부장이 'KT&G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조언을 할 예정이며, 29일에는 '화려한 휴가', '또 하나의 약속' 등 수많은 영화를 통해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영화배우 박철민씨가 강연자로 나서 '지역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11월 13일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계연 이사장이 '금융인의 자세와 미래'에 대해 소개하고, 11월21일에는 지역 굴지의 여행사인 알프스관광 안상권 대표가 '21세기 관광과 여행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18cm팀' 전국 앱 개발대회 우수상

스마트폰 분실 대처 서비스

'프리즘팀' 날씨앱 장려상

호남대학교 인터넷콘텐츠학과(학과장 김남호) 학생들이 '제2회 전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K-해커톤)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사단법인 엠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후원으로 열린 최종 결선에서, 호남대 문화콘텐츠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명중) 소속 특성화 학과인 인터넷콘텐츠학과 '18cm팀'(팀장 이은비, 4년)이 발군의 실력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은비·김미희(4년), 장영우(3년), 김민근·임병진(2년)씨 등으로 구성된 '18cm팀'은 스마트폰 분실시 손쉽게 돌려받거나 습득자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WHO ARE U'를 출품해 우수상(한국정보과학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이영현(4년), 이영훈·정준호·이지은(3년)씨로 구성된 '프리즘팀'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 대기오염 정보, 생활지수 등을 직관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UI를 가진 어플리케이션과 잠금화면, 위젯, 알림화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여주는 통합 대기정보 어플리케이션인 '웨더프로젝트'로 장려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